

中國 산업의 고도화와 중국 진출 韓國企業의 과제

노형진(盧炯晉)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I.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며 점차적으로 초기의 경공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전기/전자와 기계류 등의 수출비중이 40% 이상에 이르는 산업구조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보다 진일보된 생산방식 및 품질이 요구되는 산업구조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 역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¹⁾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물밀듯이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지금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기업들은 무역전쟁의 높은 파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산업의 고도화 및 구조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당면 과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산업의 고도화

한국기업의 국가별 해외투자현황을 보면 지난 1980년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미국에 대한 총투자액이 약 149.6억불인데 비하여 1988년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중국에 대한 총투자액은 약 135.5억불에 이르고 있다(<표 1> 참조). 중국에 대한 연도별 해외투자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표 2> 참조). 그런데 중국에 대한 지역별 해외투자현황에 있어서는 총
1) 노형진,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품질혁신전략, 대한상공회의소, 2004.

투자규모 약 135.5억불 중 산동성에 약 36.9억불, 강소성에 약 24.7억불 투자되어 두 지역에 약 45% 정도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한 해만 보더라도 지역별 편중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특히 산동성에는 청도(靑島)시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 한국기업이 일찍부터 진출하여 수천 개의 기업이 자리잡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²⁾

최근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 중국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국경제와 기업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위협보다 기회요인이 우세한 만큼 새로운 수익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중국위협론'이 부쩍 자주 제기되고 있다. 종전에는 중국의 대표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라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은 또한 한국의 주력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한국이 설 땅이 없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 산업 발전의 수준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이와 같은 걱정은 단지 사태의 한 측면에 불과함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신흥 주력산업의 부상에는 또한 동시에 한국경제와 기업에게 거대한 수익기회를 창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이 등장하는 위협과 기회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중국의 도전은 오히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³⁾

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2005.

1. 전자산업이 산업구조 고도화 주도

중국의 산업구조는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으며,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현재 중국의 제조업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율(부가가치 기준)은 30% 아래로 떨어져 있어, 일단 지표상으로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훨씬 많이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상적인 지표에 비해 그 실질적 내용은 아직 취약한 편이다.

우선, 개혁 · 개방 초기인 1980년대 초에도 중화학공업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계획경제 시대에 과도한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을 편 결과, 지나치게 비대하고 경쟁력 없는 중화학 부문을 보유하게 됐던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부실 국유기업으로 남아 있다. 이 점에서 높은 중화학공업 비율은 오히려 중국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속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철강, 화학, 기계 등 전통적 중화학 부문의 비중이 1990년대 후반까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주도한 것이 전자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획경제 시대에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던 전자산업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 결과, 이제는 중국을 대표하는 주력산업으로 떠올랐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수출산업으로 부상해 이제는 중국의 수출구조상 경공업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자산업이 기본적으로는 자본 · 기술집약적인 산업이지만, 그 내부에 노동집약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전자산업을 세부적으로 해부해보면, 심지어 IT 부문에서조차도 아직은 자본 · 기술집약적인 부품 생산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조립공이 현저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 · 개방 이후 1990년대 중후반까지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전통적 중화학공업이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오히려 노동집약

3) 노형진,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혁신전략, 한국전통상학연구, 제 19집 제1호, 한국전통상학회, 2005년 6월, pp. 95~116.

적인 부문의 비중이 상승해온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최근 본격적 중화학 시대 개막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같은 판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전통적 중화학공업이 최근 3~4년 동안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강 생산량은 2000년 1억 3천만 톤에서 2004년엔 2억 9천만 톤으로 증가했고, 자동차 생산량도 2백만 대에서 5백만 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화학제품 생산액도 같은 기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산업에서도 반도체, 휴대폰처럼 종전에 비해 훨씬 더 자본 · 기술집약적인 특성을 가진 부문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비약적인 성장을 추동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구조의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주택과 자동차, 휴대폰 등이 새로운 주력 소비상품으로 떠오른 데다 도로, 철도, 통신시설, 발전소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붐이 계속되면서 중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유기업 개혁이 크게 진전되어 중화학 부문 국유기업들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대형화된 일부 민영기업들이 중화학 부문에 활발하게 참가하기 시작한 점,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중화학공업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신흥 주력산업은 대체로 내수지향형

이처럼 중국의 신흥 주력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면, 흔히 우려하는 바대로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의 산업이 큰 위협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어느 나라의 어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웃 나라의 해당 산업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생산의 증가 속도 그 자체보다는 해당 산업의 수출입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가의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동차 생산이 지난 몇 년 사

이에 급격히 늘어났지만 한국 자동차산업에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다. 그것은 중국의 자동차 생산 증가 속도 못지않게 수요 증가 속도도 빨라서 자동차 수출입 구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동차 부품의 수출입은 꽤 많이 하지만 완성차, 특히 승용차의 경우에는 수출입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즉 중국 자동차 산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철강이나 화학, 기계 등 나머지 전통적 중화학 부문은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으며, 대체로 저급한 품목을 수출하고 고급품목을 수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이들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자동차산업도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수입을 별로 하지 않은 것은 높은 관세장벽으로 보호받은 덕분이었다.

대부분 중화학 부문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고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신흥 주력산업이 기본적으로 내수지향형 산업임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은 내수조차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내수를 충족하는 비율, 즉 자급률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그다지 상승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자산업은 수출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수출품목도 IT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중화학 부문과 뚜렷이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도 품목별로 사정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컴퓨터처럼 노동집약적인 조립가공 부문은 수출산업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반도체나 LCD 같은 자본·기술집약적 부문은 전통적 중화학 부문과 마찬가지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중국 IT산업의 기본구조가 수입부품을 조립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중국의 국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형편이며, 적어도 아직까지는 한국을 크게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 향후의 급속한 경쟁력 향상에 대한 전망

물론 이제까지 수입대체나 수출산업화가 진전되

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한국의 중화학공업도 초기 단계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했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부터는 급속히 수출산업으로 발전한 경험이 있다.

향후 중국의 경쟁력 추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신흥 주력산업을 어떤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유,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 분야는 전통적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전자와 자동차산업에서는 외자기업의 참여가 활발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단, 전자산업에서는 100% 외자기업이 많은 데 반해 자동차에서는 중국정부의 보호정책으로 인해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의 50:50 합작기업이 대부분이다.

과거에 전통적 중화학 부문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들 부문을 정부의 보호를 받는 국유기업이 주도했고 외자기업의 참여가 적어 경쟁압력이 크지 않았다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외자기업이 많은 전자산업에서는 높은 경쟁압력의 자극을 받아 중국기업들도 생산성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최근에 전통적 중화학 부문에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활발히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향후 이들 부문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될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화학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수요구조도 점차 고급품목 위주로 변해가고 있어 이제는 이들 부문에서도 외자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부문의 중국기업들도 이제는 정부의 보호 아래서 안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일부 상위 기업들의 경우 사업규모와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에 근접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5. 위협보다 기회요인이 우세

향후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된다면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수입대체와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고, 그 경우 우리 기업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모든 품목에 걸쳐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새로운 부문이 발전하게 되면, 관련 소재와 부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게 마

련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또한 '세계의 시장'으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부 품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위협을 받게 되지만, 또 다른 품목에서는 새로운 수익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반면, 다른 품목들은 종전의 몇 배 수준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전체적으로 대중국 수출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관련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한국 제품의 수출기회가 극적으로 확대됐음을 뜻한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할까. 1990년대 초 이후 중국이 세계적인 경공업 수출기지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경공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경향이 있다. 이제 경공업에 뒤이어 중화학 부문도 마찬가지로 운명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중화학 부문은 경공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고 내부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우선,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의 수출을 세부품목별로 해부해 보면, 중국의 수출품목은 대체로 저급제품으로서 한국 수출품과의 경합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중국 소재산업의 자급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 내에 고급품목이 주요 수출품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자동차나 조선 등 수송장비 부문 역시 향후 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과의 현격한 격차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산업에서는 다국적 전자기업들이 중국을 글로벌 수출기지로 육성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한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제품의 수출구조가 훨씬 더 자본·기술집약적이어서 세부품목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수출경합도가 훨씬 낮다. 또 중국의 글로벌 수출기지로 부품수요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6. 새로운 수익기회

중국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기존 사업영역을 침범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 경우 제 자리에 머무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의 경우 중국의 부상에 따른 거대한 수익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은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업구조의 고도화다. 단지 사업의 중심을 고부가가치 산업영역으로 옮길 뿐 아니라 같은 산업 내에서도 R&D, 글로벌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활동 쪽으로 이동해 나가야 한다.

둘째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중국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셋째는 중국사업을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중국 현지사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향후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차이나 리스크 점검이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나날이 커져 가고 있는 만큼 급격한 경기하강 등 중국의 돌발사태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경제 전체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가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를 산업구조 고도화와 소득증대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의 슬기로운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III. 중국 진출 기업이 넘어야 할 과제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중국 진출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중국의 사업환경을 미리 내다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전략을 갖춘 기업만이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한 노동력, 거대한 시장, 풍부한 자원 등 중국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들이다. 다른 문제면 몰라도 무엇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중국 시장.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예상 외로 “부족한 게 많아 고민”이라고 하소연을 한다. 조건에 맞는 인력이 없어 고민이고, 공장을 돌릴 에너지가 부족해 고민이고, 다 만든 물건을 파는 것도 어려워 고민이다.

1. 지속될 인력난의 극복

중국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도시 지역 실업률은 4.2%,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9%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의 각 지역별 노동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구직자수가 구인자수를 초과하는 전국 상황과는 달리 상하이, 저장, 광둥 등 기업밀집지역에서는 구인자수가 구직자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진출 한국기업 수만도 2천개가 넘는 이들 지역에서는 노동 시장이 공급자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수요 급증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지난 1990년대 말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면서 고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줄곧 있어 왔던 현상이다. 이것이 최근 들어 문제로 대두된 것은 산업의 지지기반 역할을 해온 민공(民工, 농촌 출신의 단순노동인력)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이다. 그도 모자라, 이제는 일자리를 떠나는 민공이 늘고 있다. 민공들이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공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임금도 적고 일도 힘든 노동집약형 업종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가장 “모시기” 힘들다는 17~25세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들에게 있어 공장은 이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대기장소에 불과하다.

최근 농업세 감면 등의 정부정책,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농촌 지역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물가도 싸고 스트레스도 없고 소득까지 오르고 있으니 고향이 낫다”며 아예 도시로의 이동을 꺼리거나,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 수준이 높아진 데다 최근 최저 임금도 올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빠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높은 임금을 주기 어렵고 노무 환경도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노동집약적인 사업 분야는 임금 수준이 낮은 내륙지역으로의 진출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급인력 시장도 마찬가지다. 조건에 맞는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의 2005년 대졸자 수는 31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대졸자 중 고급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많지 않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지난 2005년 10월에 발표된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 “Addressing China’s Looming Talent Shortage”에 의하면, 한국기업을 포함한 83개 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은 중국 대졸자들 가운데 외국계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재는 고작 10%도 되지 않는다고 까지 평가한 바 있다. 고급기술인력 부문도 상황은 비슷하다. IT, 인터넷, 휴대폰, 게임 등의 분야에서 R&D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능력 있는 소수의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가?⁴⁾

2. 노동환경의 선진화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을 포함한 기업 환경 선진화에 힘써야 한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영어 상용화가 급선무다. 중국어나 한국어만 사용해서는 고급인재를 유치하기가 어렵다. 중국인들이 중국기업이 아닌 외국계기업에 취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외국과 같은 근무 환경”이라는 요인이 가장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똑똑하고 성실한 10%의 인재를 유치하고 싶다면, 복지, 업무의 합리성, 외국어 사용 등의 측면에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내수판매 시장

지난해 중국의 소비증가율은 9.4%. SARS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 2003년에도 6.4%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보면 중국의 내수 확대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급속도

4) 김지목, 중국 진출 기업이 넘어야 할 3대 과제,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860호, 2005.

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두고 "시장이 작아 제품을 팔 수가 없다"고 하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기업들이 느끼는 이 "작은 시장"은 다름 아닌 시장의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다. 로컬 기업의 다각화 및 글로벌 기업의 중국 시장 U-턴 현상 등으로 시장 진입 기업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일반 제품 분야는 물론 프리미엄급 혹은 첨단 제품군에서조차 가격 하락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에어컨 시장을 예로 들면, 올해 예상되는 에어컨 수요는 약 2000만 대인 데 비해 수출을 제외한 내수공급은 4000만 대가 넘는다. 이로 인해 2002년 5,391위안이던 프리미엄 에어컨 가격은 지난해 거의 4,000위안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여전히 높은 저축률도 시장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는 한 이유다. 노후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체제의 미비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장되면서 장기저축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굳이 취약한 사회보장시스템 때문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현재는 조금 참더라도 미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습성이 있다. 지금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버스만 타고 다니더라도 나중을 위해 돈을 모아두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그저 "습성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같은 이유로, 저축률을 끌어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4. 새로 성장하는 시장에 주목할 필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원가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최근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을 살펴보면 해답이 보인다.

첫째, 소비 증가의 중심축, 프리미엄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고가품 소비가 가능한 고소득층은 전체 도시 가구의 약 13%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향후 베이징 올림픽이나 자동차 대중화 단계를 거치면서 급격히 확대되어 2010년에는 전체 도시 가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인들에게 결코 저렴하지 않은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Starbucks)가 지난해 1.8억 달러의 매출고를 올리며 판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만 봐도

중국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다. 1999년 진입 후 줄곧 "小資(프리미엄 고객)"의 요구를 반영, 중국식과 서구식이 공존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낸 스타벅스의 전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계층의 사고방식, 라이프스타일 등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장하고 있는 중소도시를 고려해야 한다.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중소도시의 소비수준도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업들의 관심은 대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중소도시 소비자들은 고급 가구나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돈이 있어도 근처에 대형매장이 없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배송 문제로 인해 홈쇼핑 구매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통문제로 신속한 제품구입이 어려운 중소도시의 소비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비를 주도할 젊은 세대를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서구화된 취향과 개인적 소비, 쇼핑문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다른 국가 젊은이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 쇼핑 성향을 가진 이들 소황제(小皇帝) 세대에 주목하고 이 연령대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특성화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5. 에너지 부족 장기간 지속 전망

올 여름 중국 동부 연해 도시와 광둥성(廣東省) 일대가 크게 술렁인 사건이 있었다. 예고도 없이 휘발유 판매가 중단된 것이다. 갑작스런 사태에 놀라긴 했어도 기업들은 그다지 새로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에는 전국 32개 성 중 24개 지역에서 전력 공급 중단으로 공장을 멈춰야 했었다. 계속되는 제한 송전으로 "일요일 영업, 월요일 휴업"은 이미 기본이 돼 버렸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는 최근 들어 GDP 성장 속도를 넘어서고 있다.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와 GDP 상승 속도의 비율이 지난 2000년까지는 줄곧 0.5:1을 유지했으나 2001년부터는 역전되기 시작해 2003년 1.3:1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1.6:1이 됐다. 그야말로 고속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

서는 2020년 석유 대외의존도에서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중국 내 확인된 석유매장량과 유전의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향후 원유생산량이 연간 2억 톤을 넘지 못하는 데 반해 소비량은 5억 톤으로 증가해 총 사용량의 60%를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앞서 세계에너지기구는 2030년 수입의존도가 8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90년대부터 해외 에너지 확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시리아, 튀니지, 오만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약 20개국과 유전 및 가스전 개발 계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발 계획에는 벌써부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일본과의 마찰이 심각하다. 러시아 석유 우선 수입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고 동중국해 가스전 분쟁도 갈수록 악화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수단,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인권탄압문제로 알려진 국가들과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미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어두운 전망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일단 전력의 경우 앞으로 최소 2년간은 어려움이 클 것이고, 석유나 수자원은 향후에도 상황이 크게 호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비상용자가 발전기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얼마든지 제고여지가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에너지 사용 효율 및 재활용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건물 단위 면적당 난방 에너지 소모율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100km당 자동차 평균 유류 소모율이 선진국보다 20% 이상 높다. 재활용률도 선진국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또한 중국인들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절약정신이 약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수도물 시간제 공급을 비롯해 공급 차원에서 절약은 늘 시도됐지만 절약 교육 부재로 일단 공급이 충분하다면 쓰고 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11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에너지 소모율을 2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에

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이 점차로 집중되고 있어, 한국의 자가 발전기 사업이나 에너지 절약 기술 및 관련 사업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리의 발전된 기술을 중국 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금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한시 바빠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더 많은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것이다.

IV. 결론

향후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된다면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수입대체와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한국기업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모든 품목에 걸쳐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새로운 부문이 발전하게 되면, 관련 소재와 부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또한 '세계의 시장'으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부 품목에서는 우리 한국기업들이 위협을 받게 되지만, 또 다른 품목에서는 새로운 수익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기존 사업영역을 침범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 경우 제 자리에 머무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거대한 수익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시장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13억 인구를 보면 기업 환경도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난제들이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인력난이나 내수 부족, 에너지난 등의 문제가 지금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들에게도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변하는 중국의 사업환경을 미리 내다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전략을 갖춘 기업만이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지목, 중국 진출 기업이 넘어야 할 3대 과제,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860호, 2005.
2. 노형진,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품질혁신전략, 대한상공회의소, 2004.
3. 노형진,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혁신전략, 한국전통상학연구, 제 19집 제1호, 한국전통상학회, 2005년 6월, pp. 95~116.
4. 溫世仁 지음·안유옥 옮김, 중국경제미래, 한국경제신문, 2004.
5. 溫世仁 지음·최원규 옮김, 중국 서부를 선점하라, 한국경제신문, 2004.
6. 정진하, 포지셔닝전략 시급한 중국시장, LG주간경제(4/3), 2002.
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2005.

<표 3> 중국에 대한 지역별 해외투자현황(1998년 - 2005년 12월말)

국가	주(국가)	선교건수	선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중국	Total	15,510	21,472,589	13,600	13,547,109
	산동성	5,467	6,044,708	4,323	3,689,928
	장강성	2,370	1,912,187	1,952	1,096,335
	광저우시	1,355	1,942,434	1,219	1,325,011
	광소성	1,186	4,106,655	1,062	2,472,250
	북경시	1,072	2,091,317	960	1,584,669
	광둥성	1,050	517,077	815	281,483
	상하이시	810	7,285,885	761	894,435
	허베이성	481	896,935	442	508,433
	광둥성	458	806,158	405	508,023
	후베이성	428	365,955	335	207,055
	허베이성	336	320,976	291	193,893
	북경시	113	111,544	96	72,253
	시안성	58	83,957	53	57,691
	지치구	60	411,296	47	148,519
	안휘성	48	93,032	40	53,290
	허난성	47	42,158	36	27,912
	후난성	38	57,527	29	39,845
	후난성	26	237,426	27	211,049
	허난성	26	69,363	24	38,216
광저우시	26	18,441	19	15,295	
허난성	20	8,311	19	4,962	
산시성	22	25,817	17	7,493	
섬시성	18	13,809	16	10,018	
광둥성	7	1,974	6	728	
귀주성	7	7,506	5	6,194	
충칭성	1	121	1	12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표 1> 국가별 해외투자현황(- 2005년 12월말)

국가	선교건수	선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미국	11,999	18,979,876	20,124	58,424,119
중국	15,510	21,472,589	13,600	13,547,109
미국	6,262	18,556,425	5,806	14,959,479
인도네시아	844	4,548,862	735	2,251,738
홍콩	833	3,212,832	727	2,269,231
베트남	655	3,178,254	742	1,552,945
오스트레일리아	341	2,653,793	306	830,266
네덜란드	87	2,718,133	77	2,285,343
영국	175	2,661,098	161	1,908,767
브루나	12	1,958,733	12	1,544,333
캐나다	285	1,659,422	263	762,337
일본	967	1,525,498	918	1,189,906
인도	206	1,500,300	176	863,703
독일	245	1,430,350	226	1,158,698
싱가포르	219	1,403,143	202	1,163,701
폴란드	83	1,332,816	74	754,417
독일	954	1,118,093	717	753,682
한국	414	972,979	369	739,963
브라질	68	916,508	57	444,296
베트남	1	821,908	1	639,187
말레이시아	368	784,237	323	498,987
일본	23	705,193	19	443,532
스리랑카	148	696,800	127	154,516
프랑스	93	641,798	89	454,676
우즈베키스탄	77	606,200	51	404,298
멕시코	120	545,763	100	394,731
러시아	236	525,735	176	269,318
필리핀	31	432,803	27	309,333
솔로몬제도	28	420,852	26	320,549
방글라데시	162	390,304	123	161,959
말라카	5	342,335	5	219,543
인도네시아	48	340,838	41	142,802
이탈리아	43	336,619	38	314,006

(중국 : 1988년 - 2005년, 미국 : 1980년 - 2005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표 2> 중국에 대한 연도별 해외투자현황

연도	선교건수	선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8	2	3,400	1	10
1989	12	9,770	7	6,360
1990	39	55,624	24	16,174
1991	112	84,722	69	42,468
1992	269	223,113	170	141,127
1993	631	631,281	381	263,682
1994	1,065	825,141	841	634,472
1995	884	1,280,595	751	841,763
1996	927	1,363,741	738	921,534
1997	751	916,974	631	738,658
1998	318	909,303	262	695,124
1999	553	494,179	458	365,291
2000	913	999,135	778	710,474
2001	1,137	997,545	1,047	695,520
2002	1,547	2,092,851	1,381	1,019,736
2003	1,838	2,806,990	1,679	1,643,233
2004	2,247	3,880,618	2,150	2,290,059
2005	2,265	3,501,617	2,232	2,581,32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표 4> 중국에 대한 지역별 해외투자현황(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말)

국가	주(국가)	선교건수	선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중국	Total	2,265	2,232,113	2,232	2,581,324
	산동성	869	1,220,476	855	647,049
	온녕성	274	257,000	268	178,504
	지치구	211	295,526	211	202,767
	북경시	206	332,269	204	405,245
	광소성	197	699,081	196	596,426
	상하이시	167	195,411	161	126,260
	허베이성	75	147,653	74	110,788
	광둥성	68	52,528	65	37,460
	허베이성	69	100,894	64	63,109
	허베이성	32	74,430	34	59,329
	후베이성	25	25,012	24	12,345
	북경시	14	16,979	16	6,197
	안휘성	13	15,457	14	9,302
	지치구	13	31,621	11	29,328
	안휘성	5	15,362	8	12,354
	허난성	7	4,176	7	13,345
	허난성	5	469	6	631
	후베이성	4	1,216	4	3,155
	허난성	5	25,297	4	18,147
후난성	2	28,651	2	46,814	
광저우시	2	344	2	339	
섬시성	2	2,140	2	2,286	
광둥성	0	0	0	0	
귀주성	0	0	0	0	
충칭성	0	0	0	0	
산시성	0	0	0	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